

# 1300억대 신종 다단계 투자 사기단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8만원짜리 산양삼을 121만원에 팔아 1300억대 기업형 신종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1100억원 상당의 산양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대표 김모(40)씨 등 일원 6명을 전원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국에 걸쳐 지역사업소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 8000여명에 8만원짜리 산양삼 121만원에 팔아

경기도 일산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1개당 8만원에 사들인 산양삼 상품을 투자자 8000여명에게 개당 121만원에 팔아 최근까지 1100억원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 회원 3000여명에게 2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320여만주를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적으로 지역사업소를 두고 "121만원 상당 산삼 패키지를 한 번만 사면 1년동안 주급으로 8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이었다.

이들은 팀장과 부장·본부장·이

사·상무 등 5단계 직급체제를 만들고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추가로 상품 구입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후순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수익 다단계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이던 이들은 사업 초기에는 돌려막기로 약속한 주급을 지급해오다 지난 1월부터 일시에 주급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거액을 투

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주부들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지역사업소에서 다단계 판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을 지시한 김씨 등 임원진과 사업소장을 검거했다.

경찰의 수사로 공지에 돌린 이들은 신문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전북경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경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는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 10대 소녀 성추행 4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1일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오후 7시35분께 전주 덕진구 한 주차장 인근에서 친구를 A(당시 13)양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전의 전력이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국세청 개청 50주년 특별전 21일 오전 임원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 및 관계자들이 정부세종2청사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50주년 특별전'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KCC이지스 농구단 전주에 남는다

## 김승수 시장, 관계자 설득 연구지 이전 압박에 따라 경기장 안전진단 뒷북 '비난'

최근 경기도 수원시로 연구지 이전 움직임을 보였던 전주 KCC이지스 농구단이 전주에 남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CC이지스 농구단으로부터 연구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냈다"면서 "전주실내체육관 홈구장은 최우선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한 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최근 언론과 SNS 등을 통

해 확산된 KCC농구단의 연구지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시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KCC모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KCC이지스 농구단과 한국프로농구연맹(KBL) 등 농구 관계자들을 만나 연구지 잔류를 설득하는데 주력해왔다.

KCC이지스 농구단은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관중들의 안전상 문제와 선수들의 경기환경 등을 이유로 수원 등 타 지역 이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김 시장은 KCC이지스 농구단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연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전주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잔류기로 하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연구지 이전을 압박하는 KCC이지스 농구단의 요구를 대부분 전면적 수용해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실제 전주시는 KCC이지스 농구단이 요구한 실내체육관 신축 문제는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KCC이지스 농구단은 김 시장이 체육관 신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연구지 잔류를 결정했다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로농구 시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전주실내체육관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미뤄오다 KCC이지스 농구단 연구지 이전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전주실내체육관 안전진단과 개보수를 서두르는 전주시의 뒷북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다. /김영재 기자

## 매형 운영 음식점에 불질러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1일 매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질러 1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35분께 전주에 있는 매형의 음식점에 불을 질러 1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매형과 딸다름을 하던 중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음식점 바닥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화재 당시 음식점 안에 손님 없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국제영화제 준비 만전

## 상영관 등 안전관리 강화

전주시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청소체계를 구축, 영화제의 주요 행사장인 영화의 거리 등 주요 시가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영화제 준비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주요 행사장과 청소취약지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또, 영화제 기간 중에는 청소소상황실과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영화제 전날인 오는 27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거리와 한옥마을 일원 등 주요 행사장

주변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휴지와 수건,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상태와 세면대·변기 등 시설물 고장 여부, 화장실 내의 청결상태 및 악취발생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청소상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개·보수 및 도색 등이 필요한 시설은 대회전까지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평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의 거리 일원 극장과 주차장 부지 등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6일에는 개막식이 열리는 옥토CGV주차장과 전주시네마, 독립영화관, 메가박스, CGV전주 등 주요 상영관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내방송 여부와 비상구와 계단 등 피난통로 확보, 영화관별 안전상황 매뉴얼 점검과 직원 및 임대매장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 김순정 전주시의원 "영화의 거리 환경개선"

## 노후 전력 지상기함 교체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고사동 일대 전력 지상기함이 영화제를 앞두고 새롭게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비례대표)은 "그동안 영화의 거리 미관을 크게 훼손해왔던 전력 지상기함 3개를 놓고 한전 측과 협의 끝에 영화제 개막 이전에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한전 측의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지상기함은 사각 철재형

태로 제작돼 인도에 설치됐으며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양과 색깔 등이 주변 환경과 맞지 않아 영화의 거리에 '욕에 티'라는 오명을 뒤집어써 왔다.

김 의원은 "지상기함 미관개선을 위해 한전 남전주지사(지사장 정관영) 직원들과 지상기함이 영화제 거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떻게 하면 전력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미관상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함께 고민 끝에 지상기함 커버 시트 교체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동물원 등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예정지, 전주동물원 등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인후동에 건립예정인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부지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김영재 기자

의원들은 또 전주동물원을 찾아 지난 4월초 야간개장 등 노고가 많았던 동물원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물사 신축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은 "오늘 현장활동을 통해 시설 관계자의 애로사항과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주동물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